

‘타임오프’ 쟁의조정 신청 ‘붐물’

광주·전남 6월에만 13건 등 올 38건

작년보다 19% ↑ ... 분쟁 갈수록 심화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한도)와 관련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이 붐물을 이루고 있다.

6월에만 광주·전남에서 무려 13건이 접수됐다. 이들 대부분은 대규모 사업장으로 ‘타임오프’가 하반기 노동쟁의 핵심 이슈로 등장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1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이하지노위)에 따르면 올해 1~6월지노위에 접수된 광주·전남지역 노동쟁의 조정 신청 건수는 총 38건이다. 지난

해 같은 기간의 32건에 비해 18.7%(6건) 증가했다.

특히 타임오프 시행이 일박한 지난 달 쟁의조정 신청이 급증했다. 전체 38건 중 34%인 13건이 접수됐다. 지난 1월 3건(지난해 이월 1건), 2월 5건, 3월 2건, 4월 9건, 5월 5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증가한 것이다.

또 이들 대부분이 대규모 사업장이어서 타임오프가 노사 갈등의 전면에 부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달 9일 광주시청 상용직 노조를 비롯해 16일 순천 현대하이스코와 여수 YS중공업, 기독병원·전남대병원 등 병원의료노조, 목포 현대삼호중공업 노조가 잇따라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냈다. 앞서 금속노조 광주·전남본부도 지난 5월 사업장 10곳을 한꺼번에 신청했다.

이같은 조정 신청에 대해지노위는 조정 성립 14건, 불성립 10건, 취하 5건, 행정지도 2건 등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7건은 현재 조정 중이다.

특히 현대하이스코의 경우 기아차와 마찬가지로 행정지도 결정이 내려져 다시 조정을 받아야 한다.

한편 광주·전남지역 연도별 노동쟁의 조정신청 건수 및 조정성립률은 ▲2005년 61건(48.0%) ▲2006년 66

건(46.8%) ▲2007년 86건(61.7%) ▲2008년 71건(68.8%) ▲2009년 55건(48.9%)이다.

전남지노위 관계자는 “최근 들어온 조정 신청은 대부분 타임오프와 관련이 있다”며 “하지만 노조와 사용자 간 입장차가 너무 큰데 타임오프 시행은 강행 법규여서 조정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노동쟁의 조정=노조와 사용자 간에 임금과 근로시간,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노조나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노동위원회가 양측을 중재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의 감모 조합원은 지난달 26일 실명으로 화성지회 간부들의 외유를 공개 비판하는 유인물을 돌렸다.

이에 대해 노조의 한 간부가 비난하고 나서자 김 씨는 노조탈퇴서를 제출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이틀간 공장 식당 앞 도로에서 항의성 단식 농성을 벌였다.

김 씨는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규율위원회에 외유파문의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문제를 다시 제기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와 관련, 기아차 일부 현장 노조원들의 조직인 ‘전진하는 노동자회’도 최근 소식지에서 “지금 당장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다는 입장을 견지해 온 만큼 노사간 신뢰를 바탕으로 협의할 것이며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합의 정신을 지켜나갈 각오가 돼있다”고 강조했다.

노동연대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차별되는 제3의 노동운동을 모색하고자 지난 3월 공식 출범했다.

현대중공업·현대미포조선·KT·서울메트로 노조와 전국지방공기업노조연대·서울시공무원노조·전국교육청공무원노조연맹 등 40여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F1 레이싱 머신

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애프터마켓 & 튜닝전시회인 ‘2010 서울 오토살롱’에서 한 레이싱 모델이 80년대 F1 레이싱 머신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기아 K5, 쏘나타 제쳤다

출시 두달만에 국내 시장 베스트셀링카 등극

기아차의 중형 세단 K5가 출시 두 달째를 맞은 6월에 국내 시장에서 현대차 쏘나타를 제치고 베스트셀링카로 등극하며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K5는 지난달 판매량이 1만673대를 기록해 국내 승용차 모델 중에서 가장 많이 팔렸다. 올해 내수 시장 판매량 1위를 지

켜 오던 신형 쏘나타는 9957대가 판매돼 2위로 밀려났다.

기아차의 경차 모델인 모닝의 판매량은 9088대에 달해 쏘나타를 바짝 추격했고 르노삼성자동차의 뉴SM5가 6821대가 팔리며 월별 판매량 4위를 차지했다.

기아차 스포티지R는 4176대로 8위, 투싼 아이엑스가 3967대로 9위, 기아차 포르테가 3416대로 10위를 기록했다. /연합뉴스

기아차 노조 ‘내우외환’

전임자 234명 중 30명 현장복귀 ... 노조 간부 ‘스폰서 외유’ 물의도

타임오프제를 놓고 파업 갈림길에 서 있는 기아자동차 노조가 내우외환을 겪고 있다. 전임자 일부가 현장에 복귀하는 등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다 노조 간부들의 ‘스폰서 외유’에 대한 도덕적 비난도 거세지고 있다.

1일 기아차에 따르면 이날 타임오프제 시행에 앞서 노조 전임자 234명 가운데 30명이 현장으로 복귀했다.

사측은 나머지 미복귀 전임자 204명에 대해 이날 전원 무급휴직 발령을 냈다.

기아차 관계자는 “개정 노조법을 원칙대로 준수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또 “유급 전임자 중 인사발령 전에 30명이 현장에 복귀했다”며 “이들로부터 타임오프 해법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리전 성격의 ‘타임오프 파업’에 대해 일부 노조원들이 반발한 데 이어 최근 불거진 노조 간부들의 부작절한 외유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아차 노조 화성지회의 수석부지회장 등 일부 간부는 지난달 중순 화성공장 직원 건강검진을 담당하는 아주대병원의 부담으로 일본 관광을 다녀온 사실이 드러났다. 분개한 화성

光銀 등 100여곳 ‘타임오프’ 접근

전국 곳곳에서 타임오프제 시행에 따른 노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현대중공업·쌍용자동차 등 100곳이 넘는 사업장에서 노사가 타임오프에 합의해 눈길을 끌고 있다.

1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광주은행 노조는 조합비를 1% 올려 자체 경비로 2명의 노조 전임자 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광주은행 노조는 타임오프 적용에 따라 현행 6명의 전임자를 3명으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3명으로는 노조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해 자체 경비로 2명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노조는 지난달 28일 전체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해 86.9% 찬성으로 조합비 1% 인상했다.

대표적인 ‘노사 상생’ 사업장으로 알려진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집행부 회의에서 현재의 전임자 55명을 30명으로 줄이기로 전격 결정했다.

또 쌍용차는 이미 지난달 19일 타임오프제를 시행하고, 임금문제는 회사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은 올해 임단협안을 찬반투표에 부쳐 78.88%의 찬성으로 마무리지었다.

제3의 노동세력인 ‘새희망 노동연대’(노동연대)도 이날 노조의 자주성을 위해 타임오프제를 수용했다.

노동연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조의 자주성 확보를 위해 전임자 임금은 노동조합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

64년째 무분규 사업장

금호고속 노사 올 임단협도 무교섭 타결

금호고속(사장 김성산)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 협약을 무교섭으로 타결했다. 이로써 금호고속은 1946년 창사이래 64년째 무분규 사업장의 역사를 이어가게 됐다.

금호고속 직행부문은 1일 광주 유스퀘어 2층 회의실에서 김성산 사장과 박석길 노조분회장 등 노사 대표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워크아웃 조기 돌파를 위한

2010년 무교섭 임단협 타결 및 노사상생 선언식’을 했다.〈사진〉 앞서 고속부문 노사는 지난달 30일 서울 경부선터미널 금호고속 회의실에서 임단협을 합의했다.

노측은 올해 임단협을 무교섭으로 회사에 위임했고, 사측은 공통분담 차원에서 임원 연봉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KT&G 조직개편 단행

KT&G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신(新)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광주·전남을 포함한 전국 영업지점을 통폐합하는 등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KT&G는 1일 전국 영업지점을 168개에서 137개로 감축했다.

광주·전남지역에서는 모두 23곳이 17곳으로 통폐합 됐다. 화순지점은 광주지점으로, 곡성지점은 구례, 강진과 보성지점은 장흥, 진도와 완도지점은 해남지점으로 각각 통폐합 됐다.

/박정욱기자 jwpark@

▼ 코스피지수	1,686.24 (-12.05)
▼ 코스닥지수	489.59 (-0.39)
▼ 금리 (국고채 3년)	3.80% (-0.06)
▲ 원·달러 환율	1,228.70원 (+6.5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공무원

2010년 전년도 공무원시험 3차시험 합격자 명단 발표

1차: 6월 22일 오후 3시~
2차: 6월 26일 오후 3시~

특수이벤트1 (6월 25일)

특수이벤트2 (6월 26일)

서울고시학원

1516-4530
seoul.co.kr

PEET/ MEET/ DEET

외사/작업이 되는 박정욱선생님

전국특수직업시험 전문강사님이 알려주는 특이직 직업 습득 방법

특수이벤트1 (6월 25일)

특수이벤트2 (6월 26일)

MDP Pass 의학원

253-6453
mdpass.co.kr